

ISSUE & FOCUS

Newsletter 2018-3(1)

국제판 내로남불, 김영철 방한 - 독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018년 1월 1일 독일의 여러 매체가 “김정은의 신년사는 독배(毒杯)”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민심 동요가 시작되자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뒤집어 남한에 손을 뻗치는 북한의 저의(底意)를 주의하라는 당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독배를 들이켰다.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었다.

독일 매체의 후속보도들이 놀랍다. “평양이 평창을 도둑질했다”, “김정일 동계 올림픽”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6.25 전쟁 참전국이 모인 밴쿠버 회의의 외무부 장관들의 반응도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접근정책을 ‘수장(水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거부했다. 트럼프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제2단계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재앙을 예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27개 해운사, 무역회사 및 28개 선박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올리는 등 해상봉쇄에도 나섰다.

이것이 새해 국제정치의 흐름이다. 현대 문재인 정권은 통일전선부장 김영철마저 남한으로 불러들였다. 국민적 저항이 거세자 통일대교를 우회해 군사도로를 타고 서울에 입성했다. 개구멍 입국이다. 통일부는 미국도 동의한 일이니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한다. 미국은 두렵고 국민은 우습다는 것이다. 천안함에서 순직한 유가족들도 몰랐다.

김영철의 방한 소식에 대해 스위스 뉴 취리히 신문은 2월 22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김영철은 2010년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수차례 미국과 한국의 제재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즉 김영철은 남한 입국이 금지된 인물인데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김영철의 방한을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니 국방부와 협의도 없이 이 썩을 대한민국 땅에 불러들인 것이 분명하다.

독일 최대 부수를 발행하는 빌트는 2월 25일 ‘대한민국 정부는 김영철은 전범으로 천안함 폭침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다고 하는데 통일부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도했고, 이에 천안함 유족들이 분노해 ‘김영철을 체포해 군사재판에 회부하라.’는 발언을 기사도 전했다.

김영철은 5성급 워커힐 호텔 17층 전체를 사용하며 호텔 밖에는 열씬 못한 채 또 다시 개구멍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워커힐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미군 장군이다. 소통을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은 김영철과 만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합의를 했는지 불통이다. 핵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한미훈련을 중단하라는 훈계만 들었다는 소문도 있다. 이 썩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대통령이 미군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단다. 하나하나가 어설프고 비정상적이다. 김영철과의 협상은 어긋났음이 분명하다. 성과를 냈다면 소통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역시 북한은 통미(通美)를 원한다. 북한은 미국의 동의없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현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2017년 3월 10일자 디벨트의 보도가 새롭다. 이 날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날이다. 이 날 디벨트는 “대통령 탄핵으로 진보좌파 정부가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다. 진보좌파 정부는 중국과 공조해 반 트럼프 전선을 구축할 것이 뻔하다. 사드 배치도 여의치 않을 것이며 사사건건 미국과 갈등을 빚을 것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이럴 경우 트럼프는 “김정은을 마르-아-라고로 불러 골프 회동을 할 수도 있다. 김정은 벼랑 끝 외교의 승리다.”라고 쓰고 있다. 국제정치의 냉혹함이 담겨있다.

국제적 왕따

김여정에 이은 김영철의 방한은 남남갈등을 넘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술책이다. 독일 포커스는 2월 9일 김여정의 방한을 계기로 ‘외교적 기만전술(Diplomatisches Täuschungsmanöver)’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보도했다. 내용인 즉, “김여정의 방한은 외교적 기만전술로 두 가지를 겨냥하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주요 동맹국과 분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대해 도덕적 명분을 쌓는 것이다.” “북한은 진보성향의 남한 대통령의 대북화해접근에 대한 열망을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의도가 실현되는 듯하다. 개막식 차 방한한 펜스 부통령은 홀로 탈북자를 만났고 천안함을 찾았다. 정부의 무리한 의전으로 만찬마저 거부했다. 한일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일본을 향해 “역사의 진실을 양심적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훈계가 중국과 북한에는 예외다. 병자호란, 삼전도 굴욕을 안겼던 중국에게는 오히려 새해 인사를 보냈다. 전쟁도발로 100만 이상의 인명피해를 안긴 백두혈통에게는 물론 불과 8년 전 천안함에 어뢰공격을 가해 46명의 청년 해군을 수장시킨 김영철에게는 일언반구도 없다. 더욱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 미사일, 화학무기 등으로 남한을 볼모로 잡고 있다.

오늘날 북한 발 이슈는 모두 국제적 이슈다. 핵, 미사일, 인권 등 김정은 정권이 자행하는 행위는 반인륜적이지요, 70년 김 家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불법이 21세기 대명천지에서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 者들과 손을 잡지 않기를 바란다.

3.1절을 맞아 태극기 집회가 대단했다. 성난 민심이 광화문 광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던 촛불을 상징하는 구조물을 끌어내렸다. 촛불로 탄생된 정부이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 이상 촛불과 태극기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